

불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영화 <소방관>으로 보는
소방관의 근무환경과 직업병



영화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사건을 배경으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신입 소방관 철웅은 베테랑 구조반장 진섭과 팀을 이뤄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데,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현장 진입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구조 작업 중 철웅의 실수로 선배가 부상을 입고, 친한 형이자 동료 대원은 어린이를 구하다 사망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철웅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도 겪게 된다. 영화 속 신입 소방관 철웅을 통해 우리는 소방관들이 불길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그들의 근무환경과 직업병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글 공주영

#01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근무환경

영화 <소방관>에서는 현장 출동 시 소방관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어려움으로 골목에 불법 주차된 자동차들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소방차는 화재 현장 앞까지 진입하지 못했고, 소방관들은 골목 어귀에서 무거운 소방호스와 장비를 들고 화재 현장까지 달려야 했다.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라 소방관들의 속은 타들어갔다.

홍제동 화재 참사 당시 소방도로에 대한 법적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2018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며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집행된 경우는 여전히 드물다.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불길을 헤치며 인명을 구조하는 장면에서도 소방관들은 극한의 위험에 노출된다. 당시 소방관들은 고온과 불꽃을 막아야 할 방화복 대신 방수복을 착용했다. 방화복은 고열, 불꽃, 유독가스, 화학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지만, 방수복은 물의 침투만 막을 뿐이다.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을 입은 이유는 방화복의 높은 가격 때문에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서는 방화 장갑조차 지급되지 않아 소방관들이 개인 비용으로 구매하는 장면도 나온다.

방화복과 방열복 등 소방장비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생명과 부상을 지키는 필수 장비다. 현재 소방장비 지급과 근무환경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최근 10년 동안 순직한 소방관은 40명에 달하며, 그중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화재 현장 출동이었다.



▶ ■ || 04:45 / 25:05



©영화 <소방관> 스틸컷

#02 '입스'에 난청까지, 소방관의 직업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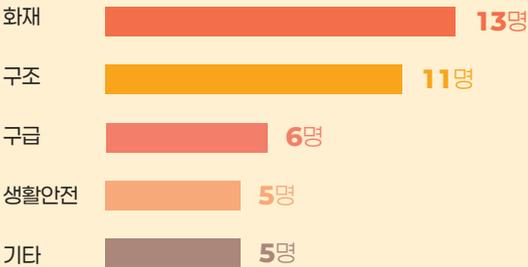
첫 화재 현장에서 철웅은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우왕좌왕했다. 일상에서는 주전자 물이 끓는 것만 봐도 긴장했다. 이를 본 선배 소방관은 철웅이 '입스'에 걸렸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언급한 '입스'는 원래 스포츠 심리학 용어로, 평소 하던 동작이 심리적 불안이나 트라우마로 인해 갑자기 잘 되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홍제동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2001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혹한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 PTSD, 불안, 우울 등 심리적 문제를 겪는 사례는 적지 않다. 분당서울대 병원 공공진료사업단과 소방청이 진행한 '2023년 소방 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심리적 문제를 겪는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3.9%는 PTSD, 우울 증상, 수면 장애 등 주요 심리질환 4개 중 1개 이상에서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소방공무원 순직자 현황(2014~2023)



총 40명

출처 2024 <소방청 통계연보>



©영화 <소방관> 포스터

심리적 문제 외에도 소방관에게 가장 흔한 직업병 중 하나는 난청이다. 난청은 출동 시 울리는 사이렌, 소방 차량 소음, 무전기 소리 등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무 환경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소방청이 발표한 '2022년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청력 검사 대상자의 약 14%가 난청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복적인 소음 노출로 인해 소방관의 청각 손상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검진을 받은 소방공무원 6만 2,453명 중 72.7%인 4만 5,453명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13.7%인 6,242명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

소방관은 화재, 재난, 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구조 활동 전후 모두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는 위험에 노출된다. 소방관의 수고와 희생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소방관의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는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